보도자료

샤라 휴즈 & 오스틴 에디 Shara Hughes & Austin Eddy
뿌리와 과일 Roots n' Fruits

전시기간: 2025년 4월 12일 (토) - 5월 17일 (토)
오프닝 리셉션: 2025년 4월 12일 (토) 4 - 7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4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1 am - 6 pm, 토요일 12 - 6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는 샤라 휴즈(Shara Hughes)와 오스틴 에디(Austin Eddy)의 첫 협업 전시 *뿌리와 과일(Roots n' Fruits)*을 개최한다. 2012 년에 처음 만나 2023 년에 결혼한 이 작가 커플은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가들은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변형하고 초월한다. 그들은 캔버스 앞에 서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결합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다. 그들의 회화에서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개별 회화는 오랜 형이상학적 의문을 제기한다. "왜 무(無)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 유(有)인가?" 화가와 회화적 상상력 사이에는 상상력을 억제하는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캔버스의 여백을 채우는 붓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내면의 움직임과 접촉한다. 화가들은 가시적 세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를테면 사진작가들보다 훨씬 자유롭다.

샤라 휴즈와 오스틴 에디의 공동 전시는 서로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회화는 내면세계를 환기하는 수단이다. 에디는 "함께 전시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을 뿐 아니라, 예술적 과정의 시작과 중간, 삶의 순환, 관계의 여러 지점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공동 전시는 우리의 사적인 역사에 대한 헌사이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다"라고 덧붙였다. 휴즈는 "우리에게 이 전시는 세상에서 맺는 관계와 경험, 정치적 환경이나 사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한다. 오스틴이 정물, 과일, 물고기, 새를 그린다면, 나는 풍경을 다루는데, 인물을 대체하는 요소로 꽃이나 나무에 집중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의문들은 동일하다"라고 설명한다.

무엇이 보이는가? 휴즈의 작품에는 주로 나무, 꽃, 태양이 등장하는데 자연이 규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나무는 줄기, 가지, 잎처럼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Just Peachy* (2024)의 복숭아나무처럼 붉은색과 초록색 선들이 얽힌 형태로 변형되어 풀과 잎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휴즈가 "복숭아가 흐드러진 나무"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배경과 관련이 있다. "나는 미국 남부 조지아 출신이다. 그 연관성이 작품 전면에 드러날 지, 완전히 추상화된 이미지로 표현되는지의 문제이다." 넘치는 생명력이 담긴 휴즈의 현실 묘사는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의 반복을 뛰어넘는다.

추상성에 대해 말하자면, *Fruit Trees* (2025)에서 휴즈는 환상에서 벗어나 구상을 추상으로 변환한다. 우리가 인지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 혼란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붉은 과일, 초록과 노랑이 섞인 풀밭, 다채로운 색의 언덕, 갈색 점들이 박힌 초록색 잎사귀를 지닌 노란 나무줄기를 암시하면서, 비표현적 요소들과 매끄럽게 결합한다. 이러한 모티프의 단순화는 사물의 정체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그녀는 식별할 수 있는 것과 식별할 수 없는 것 사이의 상호 침투현상을 추구하여 붉은 형상이 실제 과일인지 별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추상의 과정은 모호한 형태와 패턴, 질감이 혼재하는 풍경을 미스터리하게 만든다. 색채의 활용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에 다가가는 동시에 거리를 두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작가가 회화의 암시성이나 시각적 현혹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명시한다.

식물이 자극에 반응하여 특정 방향으로 굽어 자라듯이 휴즈는 나무나 과일을 볼 때 내면의 뒤엉킨 상태가 붓의 움직임을 통해 캔버스에 투영된다. 그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매우 단순한 그림을 그리려고 늘 노력하지만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언제나 결과는 정돈된 혼돈이다. 나와 많이 닮은 것 같다"면서 "오스틴의 작품을 보면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그의 능력이 부럽기도 하다. 각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그녀는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경향이 있다. 마치 모든 요소를 형태와 색채의 정글 속에 응축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듯하다.

오스틴 에디 역시 구상적 요소를 추상으로 변형하는 작가이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자연에 머무르며 풍경을 내면화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휴즈와 마찬가지로 에디는 "미술사, 선배 화가들, 동시대 작가들에 관심이 매우 많다"면서 "우리 둘 다 물고기나 복숭아나무라는 회화의 결과물보다 구도와 색채, 회화 그 자체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한다"라고 말한다. 다만 형태가 모호하게 혼재하는 휴즈의 작품과 달리 에디는 오히려 형태의 구분을 강조한다.

Vulnerable (2025)을 보면 반으로 잘린 사과가 눈에 들어온다. 녹색과 검은색의 직사각형 앞에 놓인 사과는 중심부가 드러나 있고, 하단 좌측에는 노란색 점, 우측에는 갈색 점이 있다. 붉은 테두리를 두른 사과의 내부는 흰색이고 중심부는 회색, 줄기와 잎은 녹색, 씨앗은 검은색이다. 배경의 흰 표면과 갈색 줄무늬는 어느 방의 벽을 연상시키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요소들이 추상적이고 다소 기하학적인 수많은 형태들,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 현실을 가리키는 형태들과 공존하면서 모호함으로 향한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반으로 잘려 속이 보이는 사과가 취약성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이기도 하다. 에디는 "결국, 나는 나의 취약성을 관람객에게 보여주지만, 그 취약성은 사과로 변하는 순간 사라진다. 그 사과가 바로 나"라고 설명한다. 제목부터 위트가 느껴지는 정물화 *All Great and Precious Things* (2024)는 전경에 바나나, 사과, 배가 있고 배경에 기하학 패턴, 단색 면, 녹색과 흰색 스트라이프가 보인다. 과일들의 배치는 그것들이 인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유로 기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궁극적으로 사라 휴즈와 오스틴 에디는 개인적인 경험을 추상적 상징으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그들의 작업에서 나무와 과일은 인물을 대신하는데, 이는 성별, 국적, 나이 같은 표식의 필요성을 없애는 선택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부재는 두 작가의 핵심 원칙이며, 회화를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과 교감하려는 열망 또한 공통적이다.

하인츠-노르베르트 욕스 Heinz-Norbert Jocks

샤라 휴즈(b. 1981)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태어나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스코히건 회화조각학교에서 수학했다. 개인전과 단체전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전: 쿤스텐 현대미술관(덴마크 올보르, 2023), 플래그아트재단(미국 뉴욕, 2022), 루체른 미술관(스위스 루체른, 2022), 유즈미술관(중국 상하이, 2021), 세인트루이스 현대미술관(미국, 2021), 정원박물관(영국 런던, 2021), 아스펜미술관(미국 아스펜, 2021), 르 콩소르시움(프랑스 디종, 2021). 단체전: 루체른 미술관(2025), 빅토리아국립미술관(호주 멜버른, 2024), 드 라 크루즈 컬렉션(미국 마이애미, 2023), 버논 하우스(미국 뉴포트, 2023),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미국, 2023), 롱 미술관(중국 상하이, 2023), 빈센트 반 고흐 재단(프랑스 아를, 2022), 댈러스 미술관(미국 댈러스, 2019), 휘트니 비엔날레(미국 뉴욕, 2017).

오스틴 에디(b. 1986)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2010 년 시카고예술대학을 졸업했다. 개인전과 단체전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개인전: 쿤스트할레 엠덴(독일 엠덴, 2025), 하일브론 미술협회(독일 하일브론, 2024), 아카데미 콩티, 르 콩소르시움(프랑스 디종, 2022), 켄터키대학병원(미국 렉싱턴, 2013), 뉴욕원예협회(미국 뉴욕, 2013). 단체전: 드라 크루즈 컬렉션(미국 마이애미, 2023), 버논 하우스(미국 뉴포트, 2023), 어반 현대미술관(미국 그랜드래피즈, 2022),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미국 디트로이트, 2019), 뉴햄프셔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미국 맨체스터, 2016), 조지아 현대미술관(미국 애틀랜타, 2014).

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linesales@presenhuber.com 로, 보도를 위한 사진과 관련 정보는 press@presenhuber.com 또는 JESPR(j.seo@jes-pr.com)로 문의 바랍니다.